

독서에 있어서 주요 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in Factors in Reading

남 태 우(Tae-Woo Nam)*

류 반 디(Ban-Dee Ryu)**

< 목 차 >

I. 서론	5. 출판학적 관점
II. 독서의 정의	6. 문헌정보학적 관점
1. 사전적 정의	IV. 독서의 4요소
2. 학자별 정의	1. 저자
III. 독서의 학문 관점별 분석	2. 독자
1. 심리학적 관점	3. 텍스트
2. 두뇌과학적 관점	4. 맥락
3. 언어학적 관점	V. 결론
4. 교육학적 관점	

초 록

본 연구는 다양한 독서의 정의와 독서를 다루고 있는 인접 학문들의 관점에서 독서의 여러 측면들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독서의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의 성격을 조사하였다. 독서의 주요 요소는 저자, 독자, 텍스트, 맥락의 4가지이다. 본 연구는 독서의 커뮤니케이션 측면, 특히 독자와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결론을 이끌었다.

키워드: 독서의 커뮤니케이션 측면, 구성주의, 독자, 텍스트, 맥락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various definitions of reading and examined multiple aspects of reading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ed disciplines. The study also attempted to isolate specific factors of reading—author, reader, text, and context—and investigated the nature of each factor. The study focused on the communicational aspect of reading, especially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reader and the context.

Keywords: Communicational aspect of reading, Constructivism, Reader, Text, Context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BK21연구원(ynyubit@hanmail.net) (제2저자)

• 접수일: 2012년 8월 31일 •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15일 • 최종심사일: 2012년 9월 21일

I. 서론

사람들은 독서에 많은 것을 기대한다. 지식의 입수와 축적, 스트레스 해소, 지력의 향상, 지혜의 원천, 문제해결력의 배양 나아가 입신양명, 인격적 함양 등이다. 이러한 기대는 동서고금 동일하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덕목들을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한다. 말 그대로 독서는 '마음의 양식'인 것이다.

그러나 흔히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물리적 신체를 지탱해 줄 양식이 우선이고, 후에 여유가 마련되면 마음을 살찌우겠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는 취미와 같이 선택의 하나로 독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반면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첨단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의 획득과 해독 능력이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독서 능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공공영역으로 남기기 위한 노력 이상으로 지식과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일 또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현대사회만큼 일부 계층이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독서가 필수 요소로 자리한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중요성의 크기만큼이나 독서에 대한 선행연구의 양도 방대하다.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내렸고, 학문 간의 연계도 활발하다. 그러나 독서 연구가 언제나 생명력을 지닌 이유에 시대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독서의 정의와 독서를 다루고 있는 인접 학문들의 관점에서 독서의 여러 측면들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독서의 구성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전개는 방대한 독서 연구에 있어서 현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점을 마련하여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독서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또한, 독서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독자, 텍스트, 맥락의 4개의 요인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독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정리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II. 독서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독서는 Reading의 번역어이면서 한자어 讀書의 우리말화이다. 독서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원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독서’란 ‘讀’과 ‘書’의 합성어로 ‘讀’에는 읽다, 구두점(句讀點), 이두(吏讀)라고 하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 ‘讀’의 첫 번째 뜻인 읽기는 소리 내어 읽거나 문장 구절의 뜻을 해독하거나, 풀고 설명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구두점이나 이두에서의 ‘讀’도 한자의 음은 ‘독’이 아닌 ‘두’이나 뜻은 ‘읽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두에서 ‘吏’는 아전, 서리 등 벼슬아치를 가리키며, 말 그대로 ‘이두’란 벼슬아치의 읽기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독서의 ‘書’는 글, 책, 문장, 기록, 편지, 오경, 문체 등을 말하나 짓다, 기록하다 등의 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독서를 ‘책을 읽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역시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히기 위하여 책을 읽는 일’²⁾로 풀고 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과 중국의 정의도 ‘책을 읽는다, 공부 한다’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독서라는 한자어 풀이에서의 ‘서’의 범위를 ‘책’에 대응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옥스퍼드영어사전의 정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독서행위를 정의한다. 모두 23항목의 정의³⁾가 있는데, 이것을 본 연구에서 5개의 큰 범주로 나누었다. 우선 개인적인 의미 해독의 과정으로 독서를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쓰이거나 인쇄된 것을 숙독하는 행위’나 ‘이러한 방식으로 몰두하는 습관’, ‘읽는 능력이나 읽기 기술’을 포함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2인 이상의 다자간 행동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화자는 청자를 대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전달하거나 혹은 단순히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화자가 청자보다 선행하여 텍스트를 읽는다. 여기에는 ‘명시된 부분의 전달’, ‘입법 회의 전의 공식적 법안(혹은 그 일부)의 발표’, ‘가족 구성원에게 성경의 일부를 읽어주는 행위’, ‘낭독회’ 등, 주로 쓰이거나 인쇄된 것을 소리 내 읽는 행위가 포함되는데, 단순한 음독보다는 낭독에 해당한다. 그리고 ‘강의나 논평’, ‘해석과 강술’, ‘읽히는 것’ 등 개인적인 의미 해독의 과정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의미하는 정의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의미 덩어리가 글이나 그림이나 어떠한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독서의 정의에 포함시킨 예이다. ‘어떠한 텍스트의 원판이나 사본에서 나타나는 특정 구절의 형태’, ‘특정한 구절에서 쓰이는 실제 단어’, ‘읽기를 위한 자료·재료’, ‘인쇄되거나 쓰인 글자, 활자’ 등 읽혀지는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네 번째는 화자와 청자 간의 전달과정을 갖게 되는 것으로 두 번째 정의 모음과의 차이는 로고스적인 독서보다는 파토스적 독서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예로는 ‘하나의 것을 다른 어떤 것에 연관 짓는 해석이나 의도, 혹은 그것에서 얻은 입장이나 시선’, 특히 최근에는 ‘연극이나 캐릭

1)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서울 : 두산동아, 1999), p.98.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encykorea.aks.ac.kr/>> [인용 2012.8.10.].

3)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265-266.

터, 음악 작품 등을 배우나 연주자의 관점으로 표현하는 연기 및 연주'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의 데이터 복사, 추출, 이동'을 독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컴퓨터학에서 저장 매체나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감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독서에서의 주체에 대한 논의 보다는 대상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세 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쓰였거나 인쇄된 기호를 해석해서 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해독하는 과정, 시각장애자에게 도서관 직원이 도서를 소리 내어 읽어 주는 낭독서비스,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열람하는 것⁴⁾으로 장애인 낭독서비스와 자료열람이라는 뜻은 2010년 개정판에 추가된 것이다.

독서교육사전에서는 읽기와 독서를 구별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읽기는 글 읽기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말하고, 독서는 글 읽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문자의 음성화를 강조하는 읽기나 인격의 수양을 강조하는 독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용어를 글 읽기의 양극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르다고 할 수 없다.⁵⁾ 문자의 음성화나 인격의 수양, 정서의 함양은 모두 글을 읽는 행위의 시작과 목표일 뿐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두 극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의미의 이해'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독서는 해독과 독해의 영역에 있다. 즉 기호로서의 언어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뜻을 알아가는 과정과 언어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독자로서 인식을 통해 독서를 시작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개인적 독서행위 안에 타자와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독서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찾아 볼 수 있다.

2. 학자별 정의

학자들의 정의 역시 크게 의미구성의 측면과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의미구성의 측면에는 기호해독의 과정을 선 단계로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의미구성의 측면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Betts는 독서는 사고의 과정⁶⁾이라고 하였고, 김병원은 글을 매체로 하여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의미를 다시 구성해 나가는 인간 두뇌의 복잡한 언어사고 과정⁷⁾을 말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의미구성의 측면이 중심이 되었다. 독자는 사고의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의미 구성을 한다.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4)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p.105.

5)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독서교육사전(서울 : 교학사, 2006), p.70.

6) Richard D. Robinson, *Classics in Literacy Education : Emmett Albert Betts*(Delaware : IRA, 2002), pp.61-84.

7) 김병원, 새 시대의 독서교육(서울 : 배영사, 1979), p.20.

김상옥은 독서란 책을 읽는 활동이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문자를 소리 내어 읽는다는 읽기의 축자적인 의미를 넘어 책에 담긴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 적극적인 활동이며, 궁극적으로는 작가와 독자의 대화⁸⁾라고 정의 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는 독서의 층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의미 구성이라는 것은 기호해독의 전제하에 가능하므로, 독서의 제1층위는 기호해독이다. 그 다음 층위는 종합적인 사고의 과정이며 독해의 단계이다. 해독과 독해의 단계에서 독자는 끊임없이 의미를 구성해 간다.

천정환은 독자의 책읽기 과정을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독자가 어떤 책과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 둘째는 책을 읽어가는 과정으로 해석, 해독의 과정, 세 번째는 책을 읽은 뒤 책 읽기의 영향에 의해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다.⁹⁾ 천정환의 정의는 독서 전·중·후의 단계에 따른 과정 중심으로, 해독과 의미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독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능동적인 독자의 의미구성 활동은 저자와의 적극적 대화, 즉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기도 하고, 독후 독자에게 일어나는 사고의 변화가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도모하기도 한다.

平井祥雲은 독서는 저작물을 통해 저자의 인격, 즉 저자의 인간성과 접한 결과 자기를 만드는 행위라고 하였다. 더욱이 인식활동의 관점에서 독서는, 대상이 되는 도서를 주체인 독자 스스로의 힘으로 읽고 소화 흡수한다고 하는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의 상호작용이다.¹⁰⁾ 이러한 결과에 의해 얻은 독서의 내용이 마음에 기억되어, 그 내용에 상응하는 마음이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Angela Fritz는 저술과의 대화¹¹⁾임을 강조하였다. 저술이라는 것은 작가의 의미가 담겨있는 생산물이다. 따라서 저술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작가가 담아놓은 의미를 해석해 가는 과정이며 대화과정에서 독자는 의미를 형성하고 수정하고 재형성하게 된다.

그 밖에 김효정은 독서란 좁은 개념으로는 단순히 책을 본다고 읽는다는 것이며 넓은 개념은 책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매체 나아가 문화적, 자연적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새롭게 의미를 재구성하는 전략적 사고과정이라고 하였다.¹²⁾ 문화적, 자연적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독서의 정의에 포함시킨 드문 예이다.

남태우, 김중권은 문자나 그림을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라고 독서를 정의하였다.¹³⁾ 이 정의는 텍스트의 범위가 넓다. 따라서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을 독서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8) 김상옥, "독서운동의 현황과 방향", 한국독서학회 정기 학술대회, 2012. 5. pp.70-81.

9)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서울 : 푸른 역사, 2003), p.47.

10) 平井祥雲, 行動のための讀書論(東京 : 山喜房佛書林, 1994), pp.1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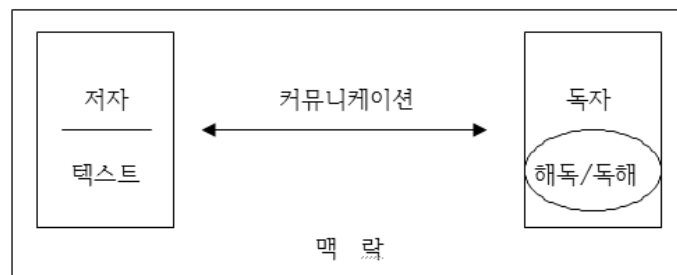
11) Angela Fritz, Alexandra Suess, 독서와 출판문화론, 이정춘 역(서울 : 범우사, 1988) p.21.

12) 김효정, 독서의 힘(서울 : 구미무역, 1992), p.6.

13) 남태우, 김중권, 한국의 독서문화사(대구 : 태일사, 2004), p.5.

느낌은 파토스적 독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정의들을 검토한 결과를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저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저술이나 그림 등 텍스트를 통해 발화한다. 발화의 대상인 독자는 내부에서의 해독과 독해의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저자와 대화를 하고 의미를 구성한다. 이 때 저자나 독자는 모두 맥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그림 1>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본 독서활동

커뮤니케이션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한 독서의 정의는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를 논하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독서자체를 개인의 활동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개인적인 활동 없이 독서가 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저자와 독자 모두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독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Escarpit가 말하는 독서는 자료의 탐구를 통해 얻은 정보의 생산¹⁴⁾이다. 독자는 생산자이며 발화자가 된다. 다시 말해 독자는 또 다른 저자이며, 정보는 순환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며, 정보가 발생하고 전달되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Ⅲ. 독서의 학문 관점별 분석

본장에서는 독서에 대한 지식과 인식들이 드러나 있는 인접 학문 영역에서 바라보는 독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분석하였다. 직간접적으로 독서와 관련된 학문분야는 심리학, 두뇌과학, 언어학, 교육학, 출판학, 문헌정보학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독서는 1차적으로 독자의 개인적 의미구성의 과정에 중심을 둘 수 있으므로 심리학과 두뇌과학을 선택하였다. 또한, 교육학에서는 학습을 통한 독자의 성장을 중심으로, 언어학은 독자와 저자 혹은 저자가 생산한 기호의 집합체인 텍스트와의 의미소통과정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출판학 역시 인쇄문화와

14) Rogert Escarpit,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김광현 역(서울 : 민음사, 1996), p.321.

지식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독서와 연관성이 깊은 학문이다. 마지막으로 문헌정보학은 자료이용과 관련 된 모든 학문적 고민이 독서에 대한 고민에 겹쳐진다는 명백한 사실에 기인하여 선택하였으며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1. 심리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독서를 독자의 심리적 과정으로 본다. 독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독서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인지 심리학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인지 심리학의 여러 연구를 통해 독서는 배경 지식의 인출과 재조직이 관련된다는 점,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는 일정한 심리적 흐름을 가진다는 점, 그 과정에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를 인지적 전략을 활용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 인지적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에 대한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등이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독자가 의미를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읽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심리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하므로, 독서를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¹⁵⁾

심리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독서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행동주의에서는 기능 중심으로, 인지심리학에서는 독서전략 중심으로, 사회구성주의 심리학에서는 활동이론 중심으로 연구의 중심 영역이 변화되고 있다.¹⁶⁾

김병원은 S-R(자극 반응)이론과 인지심리학을 심리학에서 보는 독서이론¹⁷⁾이라고 하였는데, 자극 반응이론은 보상의 연결, 연쇄 작용에 의해 독서가 진행된다고 보는 이론이며, 인지심리학¹⁸⁾은 인간의 여러 가지 고차원적 정신과정의 성질과 작용방식의 해명을 목표로 하는 과학적, 기초적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즉 지각, 기억, 주의력 등을 포함한 사고의 기본 과정을 토대로 종합, 문제해결, 추론, 응용 등과 같은 복잡한 사고 과정을 구체적인 공식이나 절차를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독서의 측면에서 독서요법 또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 유희숙에 의하면 독서요법은 정서발달과 정신문제의 예방적 차원과 치료적 차원에서 정의¹⁹⁾할 수 있다. 즉 건전한 가치관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손상된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서요법을 실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독서와의 연계성을 인지심리학과 독서요법에서 탐색할 수 있다. 인지심리학과 독서요법의 공통점을 심리적 문제해결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독서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독서활동의 주체는 치료자라고 볼 수 있다. 치료자의 의미는 문제

15)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전계서.

16) 한철우 외, "표현·이해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제22집, (2005.4), pp.31-96.

17) 김병원, 새 시대의 독서교육(서울 : 배영사, 1979), p.163.

18) 두산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www.doopedia.co.kr/>> [인용 2012. 8. 28].

19) 유희숙, 노인의 우울증 해소를 위한 독서치료법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7. pp.9-10.

가 발생한 상황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치료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필요한데, 상담자는 전문 심리 상담자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서나 교사의 자리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독서요법에서는 자가 치유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상담자와 치료자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독서활동의 주체인 상담자와 치료자가 독서의 대상으로 하는 읽기자료에 있어서는 인지심리학과 독서요법에 차이가 있다.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는 독서 자료에 한계가 없다. 문학과 비문학의 내용적 구분이나 인쇄물이나 동영상의 형식적 구분 없이 읽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독서요법의 경우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구조, 즉 문학이어야 한다. 독서요법은 치료자가 이야기 속의 등장하는 자기와 매우 흡사한 인물이나 상황을 보고 동일시를 경험하며 시작된다.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해 동일시, 감정정화, 통찰의 과정²⁰⁾을 거치며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는 독서의 측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심리학은 상담자와 치료자가 자료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독서요법은 상담자와 치료자가 이야기를 읽고 동일시, 감정정화, 통찰 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2. 두뇌과학적 관점

운동, 감각, 언어, 기억 및 고위 정신기능을 수행하는 뇌는 척수와 더불어 신경계의 최고위 중추이다.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대뇌의 전두엽에서는 기억이나 판단 등 정신활동을 담당하며 다른 연합영역으로부터의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절한다.

특히 기억과 관련해서는 대뇌의 해마의 역할로 알려져 있다. 대뇌의 내측두엽 속에 들어있는 해마는 뇌로 들어온 서술정보를 몇 주간 일시적 기억으로 저장한다. 내측두엽은 시냅스로 이뤄진 신경망을 통해 단기기억정보를 대뇌피질의 여러 부위로 전달하며, 전달된 정보는 같은 범주의 내용끼리 같은 영역에 저장된다. 이후 기억과 관련된 유전자가 발현되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기억 내용이 공고해 진다.²¹⁾ 이와 같은 활동이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 과정으로, 감각기관을 통해 입수된 정보가 신호가 되어 신경망을 통해 기억 장소에 전달되는 것이다.

두뇌 과학과 교육학이 연계하여 뇌 기반 학습과학이 탄생하였다. 뇌 기반 학습과학은 학습은 뇌에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신경과학적 연구를 비롯한 행동관찰 연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주로

20) 손정표, 신독서지도방법론(대구 : 태일사, 2001), pp.344-345.

21) 김봉균, “뇌와 마음-(3) 학습과 기억의 신경생물학-정보처리 시냅스 신경회로망의 기억 저장소,” 과학과 기술, 제 41권, 제11호(2008.11), pp.32-35.

사람이 배워서 기억하는 것을 크게 서술정보와 비서술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서술정보란 사건이나 사실 같은 것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이다. 비서술정보란 운동기술, 습관, 버릇, 반사적 행동 등을 말한다. 서술기억은 반복에 의해 비서술기억으로 전환된다.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기억은 서술에서 비서술기억으로 전환된 한 예이다. 서술정보는 대뇌, 비서술정보는 소뇌에서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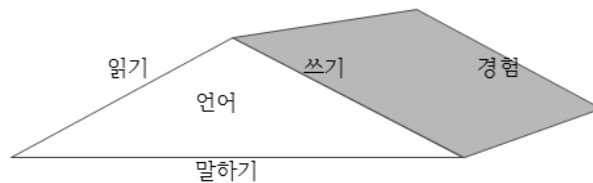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말한 기존의 학습과학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패러다임이다. 현재의 뇌 영상 기술의 발전 속도와 축적된 연구결과들의 방대함으로 미루어 볼 때, 뇌 기반 학습과학은 각종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과 같은 미시적인 개혁은 물론, 학습 환경의 설계와 교육과정 및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²²⁾

두뇌 과학적 관점에서 본 독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독자의 시청각 혹은 촉각 기관에 의해 읽혀진 정보가 신경을 통해 대뇌에 전달되고 단기 혹은 장기기억으로 저장된다. 이러한 활동의 반복에 의해 소뇌가 활성화되어 습관화가 된다. 즉 신체적 감각기관과 신경망을 이용해서 대뇌와 소뇌를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신호를 정보로 저장하는 활동이 두뇌 과학적 관점에서 본 독서이다.

3. 언어학적 관점

언어학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표현도구인 언어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언어는 사고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 요소를 주의 깊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²³⁾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적인 언어교육에서는 4개 영역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교육하였다. 그러나 총체적 언어교육에서는 언어를 부분으로 다루지 않고 전체로 다룬다. 즉 청자나 독자는 철자나 낱말이나 구문을 개별적으로 듣거나 읽지 않고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해 간다는 것이다.

Betts는 <그림 2>와 같이 말하기(듣기)와 읽기와 쓰기로 구성된 언어 영역에 경험의 한 면을 첨가하여 언어활동을 4개면에서 바라보았다. Betts는 독서를 적극적인 사고의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청자나 독자는 상징 뒤의 사실을 재구성해야 하고, 화자나 작가는 그들의 정신 구조를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⁴⁾ <그림 2>와 같이 독서는 독자의 경험에 의해 개념형성에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2> 베츠의 언어활동 4영역

22) 김성일, “뇌기반 학습과학 : 뇌과학이 교육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인지과학, 제17권, 제4호(2006.12), pp.375-398.

23) Gerhard Nickel, 언어학 개론, 이성준 역(서울 : 국학자료원, 1994), p.38.

24) Richard D. Robinson(a), *Classics in Literacy Education : Emmett Albert Betts*(Delaware : IRA, 2002), pp.61-84.

언어라는 것은 사회성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기본 전제는 화자·저자와 청자·독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겠다. 듣거나 읽어서 언어를 인지하고 말하거나 쓰기를 통해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 습득의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이 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독서의 한 측면이 된다.

언어처리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타학문과 아이디어가 폭 넓게 교류되고 있다. 언어학은 고대부터 철학과 심리학과의 연계가 강하였으며 근대 이후 학제간의 연계로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화용언어학 등이 탄생하였고,²⁵⁾ 근래 생리학, 인공지능과의 융합으로 학문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는 독서의 측면은 다음과 같다. 화자나 청자는 언어기호로 말하고 쓴다. 이것을 독자나 청자가 읽거나 듣게 된다. 언어학에서는 발화자와 수용자의 표현과 이해의 과정이 독서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교육학적 관점

별다른 인지적 자각 없이 발달하는 말과는 달리,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상당한 연습과 지도, 노력이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은 주로 그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으로 시작한다. 결국 문자를 알아보는 것을 배우고, 그 후 문자 그룹을 말로 소리 내는 것을 배운다. 인간의 말 사용과 발달이 선천적인데 반해, 글은 그렇지 않은 기술이며 모든 인간이 쓸 수 있고 습득하게 되는 기술도 아니다. 읽는 것은 분명히 전적으로 말에 달려있지만, 선천적인 성향을 갖는 것도 아니다.²⁶⁾ 그러므로 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글을 읽는 해독의 기술을 가르치고, 그 이후 다양한 읽기 전략을 통해 독해력을 증진시킨다. 즉 현장의 학생들은 처음에는 읽는 것을 배우지만(learning to read), 점차 배우기 위해 읽게 된다(reading to learn).

그러나 독서 교육이 국어과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독서를 별도의 교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다른 교과목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교사는 독서교사이어야만 한다. Betts는 효과적인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한 체계적인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의 의무라고 했다.²⁷⁾ 여기에서 독서습관의 중요성과 함께 독서와 관련된 연구와 고민이 모든 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과 교사, 사서 교사, 독서 교사 이외에도 모든 교과목의 교사들이 학습이 곧 독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ussell은 독서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을 4개의 범주²⁸⁾로 구분하였다. 우선 독서는 도구이다. 지식과 사실을 습득하고, 인간관계의 이해를 높이고, 책을 읽는 것을 장려하고, 읽기 능력을 배양하는데

25) Nickel, *op. cit.*, pp.253-254.

26) Charles A. Weaver,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4.(San Diego, Academic Press, 1994), pp. 1-11.

27) Robinson(a), *op. cit.*, pp.61-84.

28) Richard D. Robinson(b), *Classics in Literacy Education : David H. Russell*(Delaware : IRA, 2002), pp.98-110.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독서는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 전반적인 인격의 변화와 철학의 발전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독서는 일시적인 즐거움이다. 상상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도피와 휴식처로서의 즐거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독서는 미학적 즐거움을 준다.

교육학자 Paulo Freire는 자아와 세상의 대화가 독서의 진정한 가치라고 했다.²⁹⁾ 단어를 읽는 것을 통해 세상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이 독서의 가치이고 교육에서 가져가야 할 독서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학의 관점에서 보는 독서는 교육의 모든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필요에 의해 의도 된 교재에서 전략적으로 독서를 훈련한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해독과 독해의 과정을 반복하여 체득하고 평생 독자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전략으로 조력한다.

5. 출판학적 관점

구술과 필사와 인쇄의 변화 과정으로 출판문화가 생성되어 왔다. 현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판의 판도가 향하고 있다. 물리적인 텍스트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출판이 독서에서 갖는 의미는 중요하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는 데에 있다. 배현숙도 종래에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서적이었고, 서적은 문자를, 문자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³⁰⁾ 인류는 정보를 기록하고 축적하여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이며 인류문화의 발전사에 인쇄문화가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Walter J. Ong은 필사, 인쇄문화의 다른 면을 주장한다. 활동적인 인간끼리의 교제 속에서 말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소리의 세계로부터, 인쇄는 말을 떼어내어, 그것을 시각적인 평면으로 한정적으로 귀속시켰고, 지식의 관리를 위해서 시각적인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쇄는,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내면의식과 무의식적인 자원을 갈수록 점점 사물과 같은 것, 비인격적인 것,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촉발했다. 인쇄는 인간정신으로 하여금 갈수록 그 소유물이 타성적인 심적 공간 속에 보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촉구했다는 것이다.³¹⁾

육영수 역시 인쇄혁명이 만들어 낸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독서의 힘에 의해 빛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독서문화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³²⁾ 현대사회는 제2구술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인쇄매체에서 멀티미디어로 변화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언어는 구술화 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시 말해서 출판문화에서 볼 수 있는 매체의 변화가 뚜렷한 만큼, 불변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는

29) Paulo Freire, "The Importance of the Act of Reading", *Boston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 (1983), pp.5-11.

30) 배현숙, 정보문화사(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6), p.6.

31) Walter J.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임명진 역(서울 : 문예출판사, 1995), p.199.

32) 육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 : 활자 인간의 탄생과 근대의 재발견(서울 : 책세상, 2010), p.39.

것도 자명하다는 것이다.

김기태는 출판에 대한 재 정의를 내렸는데, 전통적 관점에서와는 다르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의적인 편집활동을 통하여, 인쇄술 또는 기계적, 화학적,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책의 형태로 다수 복제하거나 각종 전자기기에 탑재하여 독자에게 분배함으로써,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는 문화적,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로 오늘날의 독자는 블로그, 이메일, 하이퍼텍스트, 디지털 종이, 모바일 미디어 등을 통하여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서칭, 브라우징, 다운로드의 용어가 독서나 읽기를 대체하기도 한다³³⁾고 하여, 독서 대상의 변화가 가져오는 독서 행동 영역의 확장을 수용하고 있다. 서칭이나 브라우징은 독서교육에서는 독서 전략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독서라는 용어 사용과 인식에 대한 학문 관점별 차이를 보여준다.

출판활동의 의의는 출판물의 정교한 제작과 보급과 유통에 있다. 즉 출판물이 하나의 생산제품으로서 그 제품의 생산자와 향유자의 만남³⁴⁾이라는 것에서 독서와의 연계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심리학이나 두뇌과학에서와 달리 개인의 사고과정과 변화보다는 사회적인 유통이 독서과정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출판학에서 보는 독서의 일면은 생산자와 소비자 이외의 보급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생산과 유통을 통해 소비자가 향유하는 과정이 독자로서 독서의 목적에 도달하는 독서 과정에 해당한다.

6. 문헌정보학적 관점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독서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쓰였거나 인쇄된 기호를 해석해서 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해독하는 과정과 시각장애자에게 도서관 직원이 독서를 소리 내어 읽어 주는 낭독서비스 역시 문헌정보학에서 보는 독서에 해당한다.³⁵⁾ 그러나 독서활동의 주체가 이용자와 사서라고 생각한다면 범위가 넓어진다. 이용자 개인의 사고의 과정이라는 독서의 관점에서 저자를 포함한 주변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독자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시작은 청자의 입장에서 부터이다. 청자란 화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으로 청자에게 전할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 또한 독자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김효정은 지식, 정보, 연구조사, 영감, 오락의 자료원으로 그 가치를 발휘하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이며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창조적 사고과정³⁶⁾을 독서라고 하였다.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다. 독자의 요구에 따라 목적은 달라지고 달라지는 목적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자료도 다양하다. 사서는 이용자의 요구

33) 김기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의 재개념화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36권 제1호, (2010.6), pp.217-262.

34) 백운관, 부길만, 한국 출판문화 변천사 : 도서 유통의 성립과 발전(서울 : 타래, 1992), 책머리.

35) 한국도서관협회, 전게서, p.105.

36) 김효정 등, 전게서, p.7.

를 받아, 혹은 예측하여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사서의 이러한 활동 역시 독서의 과정에 포함된다. 교육학에서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재를 선정하고, 출판학에서는 가상의 소비자군을 설정하여 생산물을 만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서관에서의 장서 개발과 수집은 독서의 한 과정이다.

교육학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피하여 평생 독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독서활동의 목표라면, 문헌정보학에서는 이용자의 문제해결을 돕는 것이 독서활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보는 독서는 사서와 이용자가 주체로서 자료원을 이용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위 과정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다양한 학문관점별 독서의 측면을 활동의 주체와 대상과 과정으로 구분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독서의 다양한 학문관점별 측면

학문	주체	대상	독서과정
심리학	상담자, 치료자	이야기, 읽기자료	심리적 문제해결 과정
두뇌과학	생물학적 사람	서술정보	감각기관, 신경망을 이용한 기억저장, 사고활동
언어학	화자(작가), 청자(독자)	언어기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영역에서 이해와 표현의 과정
교육학	교수자, 학습자	교재	독서전략을 활용한 해독, 독해의 과정
출판학	생산자, 보급자, 소비자	생산물	생산-유통-향유
문헌정보학	사서, 이용자	자료원	자료이용의 과정

<표 1>에서 몇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독서주체는 두뇌과학을 제외하면 2인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독서를 개인의 활동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심리학의 치료자, 교육학의 학습자, 출판학의 소비자, 문헌정보학의 이용자를 주체로 생각하고, 각각 학문의 다른 주체들은 조력자의 자리에 두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의 커뮤니케이션 측면 특히 독서주체와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조력자에게 무게감을 실었으며, 조력자는 비중 있는 맥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서의 대상은 텍스트를 말한다. 텍스트는 저자의 활동의 결과물로서 <표 1>에서는 독서활동의 대상에 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 학문별로 텍스트의 범위는 다양하며, 언어학의 대상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탄생이 독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탄생하였으므로 다시금 독서의 생명의 근원을 커뮤니케이션에서 찾을 수 있겠다. 독서요법에서의 대상물도 넓은 범위를 가진다. 이야기라는 대상은 내용의 구조에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타자에 의한 텍스트일수도 있으나, 치료자 자신의 이야기나 사진, 일기 등도 이야기에 속한다. 대상의 범위가 협소한 학문은 출판학이다. 생산과 유통망을 거친 생산물에 한정되기 때문이며, 그 외의 학문에서의 독서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텍스트는 출판학에서의 생산물과 개인이나 단체의 제작물을 포함한다.

독서의 과정에서는 학문적인 테두리는 분명히 존재하나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언어학의 이해와 표현의 과정은 독서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면이다. 또한, 심리학과 두뇌과학은 개인적인 과정에, 출판학과 문헌정보학은 개인과 사회와의 연계 과정에서 독서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육학에서는 전략의 학습을 통한 독자의 해독과 독해의 과정을 독서의 과정으로 보아 일면 개인적인 과정에 속하나 개인의 사회화의 과정의 입장에서 평생 독자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므로, 개인과 사회와의 연계과정에도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면, 독서의 주체는 저자 혹은 조력자인 발화자와 독자라고 불리는 수신자를 의미하며, 대상은 텍스트를 말한다. 또한, 개인적 혹은 사회적 맥락이 다수의 변인이 되어 독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력자와 독자의 관계도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맥락 변인의 하나로 생각하면, 독서를 구성하는 요인을 저자, 독자, 텍스트, 맥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의 장에서는 각 요인을 중심으로 독서를 고찰하고자 한다.

IV. 독서의 4요소

독서 이론들은 대개 독서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독자, 텍스트,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맥락 요소를 합쳐서 4개의 독서 요소로 말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독서의 주요 요소로 저자, 텍스트, 독자, 맥락의 4개를 선정하였다. 상호작용은 요소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아 별도의 요소로 선정하지는 않았다. 각 요소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자

전통적 도서관에서 볼 때 독서는 선인과의 대화³⁷⁾이다. 전통 사회에서 텍스트는 성현의 말씀을 담고 있었으므로 독자에게는 텍스트가 곧 성현에 다름 아니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유학자들이 책에 향하는 존경심은 저자를 숭배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저자는 대화적 존재라고 하지만 저자에 대한 권위는 구성주의 하에서 변화되었다. 구성주의에서는 텍스트를 통한 독자의 의미구성 과정을 독서로 본다. 이에 따라 절대 존재인 저자의 생산물인 텍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되고 주체적, 능동적

37) 정병현. "전통적 도서관과 그 현대적 의미," 독서연구, 제1권, 제1호(1996), pp.35-54.

인 독서의 주체로서 독자에 대한 비중이 강화되었다.

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초 발화자로서의 저자의 권위는 축소되었으나, 교사, 사서와 같은 독서활동의 조력자가, 혹은 학습자나 이용자와 같은 독자가 제2, 제3의 저자로서 텍스트를 재생산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의 규정과 같이 저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혹은 원 저작물의 작성자 및 이차적 저작물의 작성자³⁸⁾이며, 독본을 만드는 저자의 개념이 아닌 정보 생산자의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인쇄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창조성을 강조한 낭만주의 시대의 저자의 개념은 디지털 텍스트와 맞물려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³⁹⁾ 텍스트의 원저자의 권위와 함께 텍스트 권위의 약화는, 저자의 의미구성 덩어리인 텍스트의 당연한 운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독서의 요소로서 저자가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는 발화자로서 의도 된 텍스트를 만든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독서의 첫 단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저자는 독자에 앞서 존재하며, 독자에게 있어서 읽기란 텍스트를 통해 저자의 생각을 파악하고 독자 개인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첫 시작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독서를 바라 볼 때 저자가 발신한 의도의 파악은 매우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 독자 이상으로 저자에게 미치는 맥락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독자

독자는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해석하는 주체이다.⁴⁰⁾ 구조주의의 관점에서는 독서의 문제를 문자로 된 텍스트 요인에서 찾아왔다. 그러나 독서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며, 독자의 신분에 따라 천태만상 다른 것이다.⁴¹⁾ Fritz는 독자는 텍스트의 저작자를 완전히 망각한다고 하였다. 독자는 공동창작자이지 수신자가 아니라고 정의하기도 한다.⁴²⁾ 독자는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prosumer)의 입장이 된 것이다.

저자가 어떤 주제로 썼는가, 작가가 내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유통을 통해 생산물을 소비한다는 관점에서의 독자나 제공된 자료를 이용한다는 관점에서의 독자는 그 독자가 속한 사회의 영향권 내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사회 권력의 폭력으로 볼

38) 한국도서관협회, 전계서, pp.280-281.

39) 박승희, "디지털 텍스트와 새로운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31집(2005), pp. 343-363.

40)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전계서.

41) 양태진, 독서와 선택이론(서울 : 연경문화사, 1978), p.39.

42) Fritz, Suess, *op. cit.*, p.21.

수도 있다. 검열의 문제, 금서와 베스트셀러의 문제, 목록의 진정성의 문제 등 특히 민주화의 성장과정에 있었던 우리 지난 역사 연구에서 피해 갈 수 없는 논제이다.

사회의 영향에 대한 구성주의의 시각은 보다 유연하다. 독자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는데, 사회적 참여가 이러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Vygotsky는 개인의 인지 발달 역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한다.

사회는 독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의 하나이다. 사회구성주의나 사회 언어학에서는 맥락을 포괄적으로 보는데, 독자는 지역적인 문화, 공동체의 문화, 학교문화, 교실문화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독서 행위를 하게 된다.⁴³⁾

독자는 개인의 능동적 활동으로 사고를 하나,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독자 개인의 해석은 배경지식에 따라 다르지만, 독자의 경험의 종류와 깊이 또한 사회의 집단적 관점에 영향을 받는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역시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다. 인간 사회의 기술은 매체를 변화시킨다. 독자는 매체의 언어를 해독해야 한다. 그리고 매체 언어라는 상황적 맥락에 맞게 독해를 해야 한다.

생산 참여 소비자로서의 독서행위의 주체는 독자이면서 저자이다. 저자는 다시 독자를 향해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저자와 독자 모두 활발하게 맥락과 상호작용 한다.

3. 텍스트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는 독서의 대상물로, 독서활동을 정의하는 관점에 따라 범위의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텍스트를 글에 한정하기도 하나, 글보다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콘텐츠 전체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으며, 매우 넓게는 자연 정보가 담고 있는 의미까지 텍스트로 보기도 한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서는 보통 말이나 숫자, 음성, 영상, 기타 기호에 의해 사상이나 감정 등을 창조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작품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⁴⁴⁾

이제는 메시지 수용방법에 따른 매체들의 공유화를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Fritz의 의견과 같이,⁴⁵⁾ 현대가 필요로 하는 독서는 변화하는 매체와 매체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공통의 독서 과정을 고민해야 한다. 노병성에 의하면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유형화된 책의 독자가 위축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구텐베르크 이후 최대의 텍스트를 독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⁴⁶⁾ 매체 언어 연구는 텍스트 이해의 관문으로서 비중 있는 연구영역이 되었다.

43) 박영목 등, 21세기 사회와 독서지도(서울 : 박이정, 2003), p.17.

44) 한국도서관협회, 전계서, p.282.

이는 저작에 대한 해석이기는 하나 저작의 번역본을 텍스트로 칭하고 있으므로 텍스트와 동일하다고 판단함.

45) Fritz, Suess, *op. cit.*, p.199.

46) 노병성, “아날로그와 디지털 텍스트의 독서 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제54호(2008), pp.168-180

Escarpit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텍스트는 쓰이고 읽히기 때문에 존재한다. 텍스트는 하나의 사물도, 매체도 아니라는 말이다. 즉 텍스트는 글쓰기-독서의 변증법이 구성하는 이중적이고 상반되는 행위의, 항상 움직이고 항상 연루된 결과이다. 이런 관점에서 책을 '항상 움직이는 팽이'와 비교한 Sartre는 텍스트라는 정신의 작품을 작가와 독자의 협력의 결과로 정의한 것이다.⁴⁷⁾ Escarpit의 전제도 글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독자와 저자의 협업에 의해 변증법적으로 구성 된다는 텍스트성을 차용하고자 한다.

위에서 차용한 변증법적 텍스트성의 관점은 신도피칼 독서⁴⁸⁾부터 하이퍼텍스트에도 적용 가능하다.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부분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연계 정보원을 이용해서 의미를 형성한다. 텍스트는 독자의 변증법적 의미 구성의 대상이며, 산물이다.

4. 맥락

구성주의의 사회적 읽기가 대두되면서 강조 되어 온 맥락은 2개의 층위를 가지고 있다. 텍스트의 의미적 요소를 둘러싼 텍스트의 총체로서의 문맥과 더 넓은 의미로는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위치하는 역사적 상황⁴⁹⁾이다. 문맥은 텍스트의 내부적 요소이므로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맥락에 대한 논의에서 문맥은 제외하기로 한다.

Gaskins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변인으로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의 세 가지 집단변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⁵⁰⁾ 인지적 변인은 교사의 지식, 학급문화, 교수법 등이고, 사회적 집단변인은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종교, 그리고 가족과 동료에 의한 지원 등을 말한다. 본 연구의 3장에서 검토한 조력자의 위치가 인지적, 사회적 집단 변인에 속한다. 조력자의 지식이나 도구의 활용의 관점에서 인지적 변인에, 조력자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 집단변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 집단변인으로는 고유의 언어, 관습, 가치 등이 속한다. 앞서의 독자 요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맥락은 배경지식으로 작용하여 독자의 읽기에 깊이 관여한다.

이상의 독서의 주요 요소에 관한 논의를 <그림 3>으로 정리하였다. 기존의 독서정의들을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본 <그림 1>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을 추가한 관계도이다. 독서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요소는 독자이다. 독자는 텍스트를 생산한 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며 또 다른 저자가 된다. 독자는 개인적으로 해독과 독해의 사고과정을 경험한다. 독자의 성격은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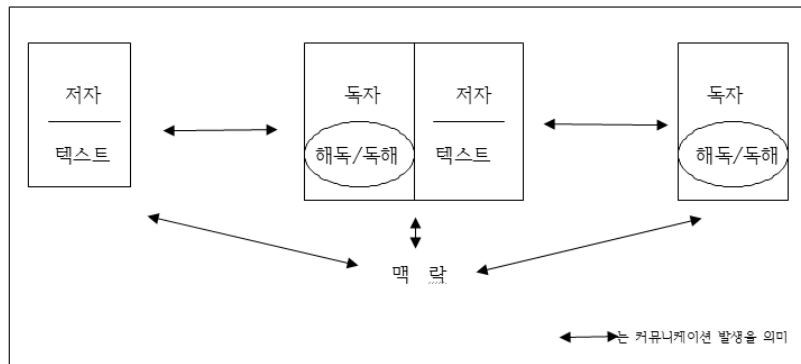
47) Escarpit, *op. cit.*, p.325.

48) Mortimer J. Adler, 독서의 기술, 민병덕 역(서울 : 범우사, 1993), p.203.

49) Escarpit, *op. cit.*, p.316.

50) Irene W. Gaskins, 독서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 : 독자, 글, 활동, 맥락 변인을 다루기, 엄해영 등 역(서울 : 한국문화사, 2007), pp.250-251.

참여 소비자이다. 저자는 최초 발화자로서, 텍스트는 독자와 저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즉 독서의 대상물로서 독서의 주요 요소로 자리한다. 그리고 독자와 저자 모두는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형성한다.



<그림 3> 저자, 텍스트, 독자, 맥락의 관계도

V. 결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생각과 삶을 윤택하게 해 왔고, 문화를 창조하고 발달시켜왔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독서는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지표이며, 독서력은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또는 선인의 사상을 접하고 아름다운 글귀에 감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아를 바라보고 타인과의 소통도 가능해지며, 지적 성장을 바탕으로 보다 풍요롭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한다.

이처럼 독서가 주는 이로움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독서를 한다. 그런데 독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행위가 아니다. 부단하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훈련을 거치면서, 독자가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거나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독서는 독자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상황에 맞게 오랜 시간 학습해야 하는 행위인 것이다.

독서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왔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독서에 대한 정의 또한 여러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독서의 정의를 커뮤니케이션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독서에 대한 지식과 인식들이 드러나 있는 인접 학문 영역에서 바라보는 독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분석하였다. 직간접적으로 독서와 관련된 학문분야인 심리학, 두뇌과학, 언어학, 교육학, 출판학, 문헌정보학을 들 수 있다. 심리학과 두뇌과학은 독자의 개인적 의미구성의 과정에 교육학은 학습을

통한 독자의 성장을 중심으로, 언어학은 독자와 저자 혹은 저자가 생산한 기호의 집합체인 텍스트와의 의미소통과정을 중심으로 독서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였다. 출판학은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문헌정보학은 자료이용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독서활동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학문에서 바라보는 독서의 관점을 바탕으로 독서를 구성하는 저자, 텍스트, 독자, 맥락의 4개의 요소를 추출하였고,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관계도를 완성하였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독서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요소는 독자이다. 그러나 저자의 발신 없이 독자는 존재할 수 없으며, 저자의 의도가 담긴 텍스트를 사실적으로 이해한 후에, 독자 중심의 의미구성도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계에서 독자와 저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후속으로 독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의 관계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각 시대의 어떠한 현상으로 관계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지 등, 독서의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는 노력을 기대하며 줄고를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 김기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의 재개념화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36권, 제1호 (2010. 6), pp.217-262.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 두산동아, 1999.
- 김병원. 새 시대의 독서교육. 서울 : 배영사, 1979.
- 김상욱. “독서운동의 현황과 방향.” 한국독서학회 정기 학술대회(2012. 5), pp.70-81.
- 정병현. “전통적 독서관과 그 현대적 의미.” 독서연구, 제1권, 제1호(1996), pp.35-54.
- 김봉균. “뇌와 마음-(3) 학습과 기억의 신경생물학-정보처리 시냅스 신경회로망의 기억 저장소.” 과학 기술, 제41권, 제11호(2008. 11), pp.32-35.
- 김성일. “뇌기반 학습과학 : 뇌과학이 교육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인지과학, 제17권, 제4호(2006. 12), pp.375-398.
- 김효정. 독서의 힘. 서울 : 구미무역, 1992.
- 남태우, 김중권. 한국의 독서문화사. 대구 : 태일사, 2004.
- 노병성. “아날로그와 디지털 텍스트의 독서 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제54호(2008), pp.168-180.
- 두산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www.doopedia.co.kr/>> [인용 2012. 8. 28].
- 박승희. “디지털 텍스트와 새로운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31집(2005), pp.343-363.
- 박영목 등. 21세기 사회와 독서지도. 서울 : 박이정, 2003.

- 배현숙. 정보문화사.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6.
- 백운관. 부길만. 한국 출판문화 변천사 : 도서 유통의 성립과 발전, 서울 : 타래, 1992.
- 손정표. 신독서지도방법론. 대구 : 태일사, 2001.
- 양태진. 독서와 선택이론. 서울 : 연경문화사, 1978.
- 유혜숙. 노인의 우울증 해소를 위한 독서치료법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7.
- 육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 : 활자 인간의 탄생과 근대의 재발견. 서울 : 책세상, 2010.
-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서울 : 푸른 역사, 2003.
-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encykorea.aks.ac.kr/>> [인용 2012.8.10.].
-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독서교육사전. 서울 : 교학사, 2006.
- 한철우 등. “표현·이해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제22집(2005. 4), pp.31-96.
- 한철우 등. 독서교육사전. 서울 : 교학사, 2006.
- Adler, Mortimer J. 독서의 기술, 민병덕 역. 서울 : 범우사, 1993.
- Escarpit, Rogert.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김광현 역. 서울 : 민음사, 1996.
- Freire, Paulo, “The Importance of the Act of Reading.” *Boston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 (1983), pp.5-11.
- Fritz, Angela, Suess, Alexandra. 독서와 출판문화론, 이정춘 역. 서울 : 범우사, 1988.
- Gaskins, Irene W. 독서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 : 독자, 글, 활동, 맥락 변인을 다루기, 엄해영 등 역. 서울 : 한국문화사, 2007.
- Nickel, Gerhard. 언어학 개론, 이성준 역. 서울 : 국학자료원, 1994.
- Ong, Walter J.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임명진 역. 서울 : 문예출판사, 1995.
- Robinson, Richard D. (a). *Classics in Literacy Education : Emmett Albert Betts*, Delaware : IRA, 2002.
- Robinson, Richard D. (b). *Classics in Literacy Education : David H. Russell*, Delaware : IRA, 2002.
-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Weaver, Charles A.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4, San Diego, Academic Press, 1994.
- 平井祥雲. 行動のための讀書論. 東京 : 山喜房佛書林, 1994.